

동부화재

동부화재 김정남사장 남녀고용평등 유공자로 선정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은 4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2 남녀고용평등'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로 선정돼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 신갈연구소에서 열린 이번 행

사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남녀차별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사회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인식 확산을 유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은 지속적인 여성인력 채용과 능력개발, 그리고 소통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상호소통을 주요 경영원칙의 하나로 선정하고, 'CEO와 통통통(通通通)', '다이나믹 리더 컨퍼런스' 등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사내외 교육기회 확대, 승진율 제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창립50주년 맞아 글로벌 사랑 나눔 실천 연도상 시상식 개최



동부화재는 4월 13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김정남 사장과 550여명의 PA들이 현지 사무소가 있는 베트남 하노이의 Grand Plaza Hotel에서 글로벌 사랑 나눔을 실천하

는 2012 연도상 시상식을 가졌다.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과 연도상 수상자 50여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된 시상식 직후 하노이 외곽의 고아원을 방문해 '동부드림스쿨(Dongbu Dream School)' 1호 개관식을 갖고 550여명의 설계사와 대리점대표가 각자 준비한 500여종의 기부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부천사업단 부천지점의 박금란씨와 포항사업단 포항남부대리점 신명희씨가 설계사 부문과 대리점 부문에서 각각 영예의 판매왕에 올라 연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화재예방교육 실시

KFPA는 2012년 5월 11일부터 2013년 3월 29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769명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예방교육은 KFPA와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화재발생물 저감은 물론 화재안전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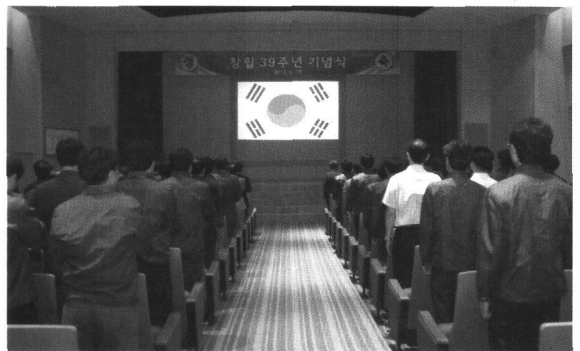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자력으로 긴급대피가 곤란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거동이 불편한 계층이 대부분 생활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종사자들에게 대한 전문적인 화재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이에 KFPA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화재 시 피난 및 대처요령, 소방설비, 소화기 사용법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KFPA의 전문강사들이 교육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KFPA는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전국의 아파트 주민, 직장인, 장애인, 노약자, 군인, 초·중·고·대학생 등 화재예방교육을 원하는 직직이나 단체에서 요청이 올 경우 원하는 시간에 해당 장소를 직접 찾아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평균 서울자치구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근 4년 평균 특수건물 화재발생률이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 중점지역으로 정하고 화재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11년 기초자치단체 중 화재발생 건수가 전국 1위이며 최근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화재발생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도 중점지역에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KFPA 창립 39주년 기념식 개최



KFPA는 올해로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 5월 15일(화) 오전 9시 KFPA 1층 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KFPA는 위험관리 전문기관 기반 구축과 화재안 전문화의 효과적 확산이라는 금년도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자고 다짐하였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교육과 평가를 통한 안전점검 역량 강화, ▲화재안전관리에 우수한 건물에 인정서와 인정패를 부착하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 정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줄이기 위한 화재예방교육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안전 봉사활동의 지속적 전개, ▲방화로 인한 보험사기 감소를 위한 화재원인조사 서비스를 더욱 철저히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현재 KFPA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TFT를 통해, 향후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분야에도 전문 위험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건축심의위원회,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벤치마킹 위해 내한



5월 29일 인도네시아 건축심의위원회 의장 및 자문단 일행 16명이 KFPA를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 건축심의위원회는 아시아 선진국가에 소재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소방 설비 및 관리실태를 견학하고, 자카르타에 건설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안전관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KFPA가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한 화재예방교육, 화재안전에 우수한 건물에 인정패와 인정서를 수여하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 화재원인조사업무, 시험연구 등 KFPA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초고층 관련 기술 및 기준에 대한 정보도 요청하였다.

KFPA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건축심의위원회 외에도 지난 2011년 4월 국제방화연맹 임원단이 KFPA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및 KFPA의 화재안전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KFPA가 세계적인 방재기관이 되도록 세계 우수 기관들과 협력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건축심의위원회는 KFPA 외에도 여의도에 소재한 국제금융센터(IFC)와 63빌딩 등을 방문한 후 5월 31일에 귀국하였다.

방재시험연구원, 중소기업청 컨설팅기관으로 지정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컨설팅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6월 19일(화)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 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증신청, 제품시험 및 수정·보완, 공장심사 준비 및 지도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방재시험연구원이 지정받은 전문분야는 영국 로이드 선급(LR), 프랑스 선급(BV), 독일선급(GL) 등 해외선급기관 인증과 미국해안경비대(USCG) 형식승인, TUV Rheinland 인증 등이며, 방재시험연구원을 통해 이들 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중소기업은 1건당 최대 43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선박은 출항한 이후 화재가 발생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선박관련 자재 등에 관한 화재안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기관 지정을 통해 그간 방재시험연구원이 축적해온 해외인증마크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기술력 등을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